통합 뉴스룸 도입 이후 뉴스생산 노동과정의 변화:
CBS 통합뉴스룸 사례연구

윤익한* · 김균**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 혁신은 언론 부문에서 핵심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노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과정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기술혁신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면서 탈숙련화의 과정을 겪어 왔고, 경영진들은 억압적인 노동조건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장치들을 도입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본 연구는 뉴스룸 통합의 기술혁신이 기자노동의 숙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경영진들이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CBS 통합뉴스룸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뉴스룸 도입으로 인해 기자들은 숙련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면서 탈숙련화되고 있었다. 또한, 경영진들은 새로운 뉴스생산관행, 가족주의 노사문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의를 획득해 나갔으며, 내부노동시장 분절화를 통해 기업권력의 강화와 노동사회의 고립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주제어: 통합뉴스룸, 노동과정론, 기자노동, 탈숙련, 뉴스생산관행

1. 서 론

20세기 들어 국가경제가 세계로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컨버전스(convergence)는 1990년대 중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미디어 기업 간의 합병, 크로스 프로모션과 같은 경영과 마케팅의 시도”(Quandt & Singer, 2009;131쪽)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써 유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흔히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논의에서 “기술이 이전의 세상과 분리된 진공상태에서 생산된 것”(Scott, 2005;93쪽)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새로운 기술은 생산의 합리화를 추구하려는 자본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어 왔다고 할 때, 컨버전스의 유행도 “자본가들이 이윤 획득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축적의 전략”(McKercher, 2002;viii)의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저널리즘의 컨버전스 논의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의 새로운 전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인해 언론노동의 재구조화와 언론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온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임금노동자로서 언론기업의 잉여가치 증식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이 언론인의 지위와 성격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의 문제는 ‘노동’(labor)의 관점을 통해서만 규명해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 분야에서 기술혁신으로 인한 언론노동의 성격변화나 언론노동자들을 포섭해나가는 자본의 기획에 대한 연구관심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동안 언론인의 직업과 노동 부문에 대한 연구는 주로 터크만(Tuchman, 1978), 갠즈(Gans, 1979), 피쉬만(Fishman, 1980) 등의 조직사회학적 연구경향 속에서 게이트키핑, 사회적 통제, 전문인주의, 저널리즘 효과 등의 개념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관료체제와 조직이론에 기초한 틀에 집중하면서 뉴스생산 노동과정과 노동문화를 이론화하고 검토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yunik77@hanmail.net)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kyunkim@sogang.ac.kr)

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았다"(Hardt, 1990; Mosco, 1996/1998). 최근 들어 국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신기술과 신경영기법의 도입에 따른 방송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김순영; 2007, 김영한; 2008, 김현선; 2009, 김동원; 2010)이 수행되었지만, 저널리즘 분야에서 핵심적 노동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노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노동과정론을 이론틀로 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통합뉴스룸을 구축한 CBS(기독교방송)를 분석함으로써, 뉴스룸 통합 현상도 자본과 노동 간의 사회적 관계라는 쟁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뉴스룸 연구들이 설문조사나 일부 언론인들과의 인터뷰에 한정된 단편적이고 2차적인 분석에 머물렀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는 통합뉴스룸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컨버전스로 대변되는 최근의 뉴스 조직 및 생산 방식의 변화가 언론노동의 성격 변화에 어떤 구체적인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2. 기술혁신에 따른 언론 노동과정의 변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일반적인 특징은 노동자가 노동과정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미 마르크스(Marx, 1976)는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작업장에 새로운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은 심화되어 왔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기술혁신과 노동과정에 대한 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1970년대 중반 브레이버만(Braveman) 이후 노동과정론(Labor Process Theory)으로 구체화되면서 많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낳았다. 브레이버만(Braverman, 1974)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기술혁신이 '구상(conception)과 실행(execution)의 분리'를 통한 노동의 '탈숙련화(deskilling)'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브레이버만 이후 노동과정론에 대한 상당수의 연구는 "브레이버만이 제시한 명제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의 연속"(차성수, 1986;18쪽)이라고 할 정도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 글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뉴스생산 노동의 변화와 연관 지어 세 가지 측면에서 개념적,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브레이버만의 개념을 이론적 틀로 하여 진행된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탈숙련화의 과정을 '구상=정신적 힘', '실행=육체적 힘'의 등식으로 조작화 하는 이분법적인 틀에 빠짐으로써, 탈숙련을 곧 숙련기술의 보유 여부로 한정하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 예를 들면, 외르네브링(Örnebring, 2010;62쪽)은 역사적으로 언론노동 부문에 이 개념을 적용하면서, 구상을 "신문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인쇄를 위해 자원을 결정하고, 자원 수집 단계를 거치며, 작가들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실행을 "실제 정보를 수집하고 글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공장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노동을 정신노동이 배제된 육체노동만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지식노동의 한 형태인 언론노동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탈숙련의 개념은 단지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힘의 보유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노동자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에 대한 숙련도, 통제력, 자율성이 약화되는 측면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자들의 지위, 노동의 성격, 분업구조가 자본가들의 관리에 의해 통제받는 현상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브레이버만이 사용하고 있는 탈숙련 명제가 "산업화 시대 장인적 노동에서 전개된 탈숙련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Thompson, 1983/1987;90쪽)이었기 때문에 정보사회 이후 출현한 다양한 부문의 지식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정보사회 노동은 탈숙련이 아닌 재숙련(reskill)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오랜 '탈숙련-재숙련' 논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술혁신 과정에서 언론노동의 숙련도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전신(1861년), 전화기(1877년), 타자기(1872년)의 발명과 1950년대 텔레타이프 식자기(TTS)의 등장, 1970년대 컴퓨터 기술을 응용한 CTS 및 VDTs에 따른 신문기업의 인쇄·공무, 편집부문 노동의 재구조화 과정에 주목해 왔고, 그 결과로서 인쇄산업의 기계화, 자동화 과정에서 인쇄공들에게 필수적이던 판단기능과 숙련이 제거되고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가 축소되는 대신 경영진의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시키는 작업장을 만들어왔다는 탈숙련화를 주장해 왔다(Zimbalist, 1979; Hardt, 1990; Liu, 2006; Örnebring, 2010). 국내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신문산업에 CTS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신문산업의 기술혁신과 언론노동과정에 주목하는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는데, 외국 연구와 마찬가지로 CTS 도입이 노동의 전반적인 탈숙련화와 주변화, 노동력의 감소, 기존 숙련노동의 통제력 약화 등을 가져왔다고 분석하였다(김지선, 1992; 김미경, 1993; 정연우, 1994; 최진환, 1994; 박성희, 1995; 강상현, 1996). 이처럼 장인적 성격에 가까운 인쇄·공무 노동의 지위 하락은 탈숙련 명제가 잘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CTS 도입 이후 기자노동의 성격변화에 대해서는 탈숙련, 재숙련, 장기적으로 탈숙련화 될 것으로 보는 연구들까지 결론이 유보적이거나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1]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기자노동이 어떠한 양상을 띨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론적, 경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2]

셋째, 브레이버만의 탈숙련 명제는 기계화나 자동화와 같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노동자의 저항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노동에 대한 통제가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를 창출하는 헤게모니적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대표적인 학자로 뷰러웨이(Burawoy, 1979;20쪽)는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의 본질이 잉여가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은폐하는 데 있다"고 보고, 탈숙련과 같은 억압적 노동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경영진에 기꺼이 협력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은 기술혁신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참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자본가에 의해 형성되고 노동자들에 의해 재창출되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언론노동부문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통제양상을 분석한 하트(Hardt, 1990;361~362쪽) 역시 "언

1) CTS 도입 이후 기자노동의 탈숙련화 정도는 매우 낮지만 장기적으로 탈숙련화 될 것으로 보는 연구는 정연우(1994)가 있으며, 반대로 기자노동의 경우 기술혁신에 따른 재량권의 확대로 재숙련이나 숙련상승이 기대된다는 연구는 최진환(1994)이 있다. 그러나 CTS 도입과 같은 기술혁신은 주로 인쇄 및 공무노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기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이 기자노동의 숙련도 변화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단정하기는 어렵다.

2)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가 기자들의 노동을 탈숙련화시켰다는 Liu(2006)의 글은 브레이버만의 '노동과정론'을 이론적 틀로 하여, 기자노동의 탈숙련화를 분석한 논문으로 참고할 만하다. Liu(2006)는 신문사 뉴스룸에 ICTs가 도입되면서 기자들의 노동량 증가와 경영진의 통제 강화로 기자들의 노동조건이 심화되었고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며, 기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평가절하되기도 했고, 기자노동 약화와 함께 고용불안이 나타나며 값싸고 비숙련인 젊은 고용인들이 채용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론 노동자들의 경험을 포함해 작업장에서 이데올로기적 힘의 존재를 규명하고, 특정한 노동조건의 관리를 특징짓는 동의창출 과정을 추적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유사하게 임영호(1992;86쪽)도 "언론 노동자의 노동문화, 직업윤리 등에 스며들어 있는 언론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을 전제"한 노동과정의 총체적인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혁신으로 달라진 언론 노동과정에 대한 언론 노동자들의 대응방식과 자본의 통제 전략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첫째, 언론노동이 수행되는 작업장인 뉴스룸에서 기자들이 뉴스생산 규칙이나 규범과 같은 노동수행 관행의 변화에 순응해 가는 방식과 둘째, 기술혁신에 대한 언론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경영진들이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나 내부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통해 노동과 자본 간의 갈등을 노동부문 내부의 갈등으로 바꿔어 나타나게 하는 정치적 전략을 규명함으로써,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본가들이 작업장 내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의를 창출시키는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3. 통합뉴스룸의 발전과 CBS 통합뉴스룸의 구성

1) 통합뉴스룸의 개념과 기존연구 검토

2000년대 들어 해외 미디어기업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산업을 중심으로 위기 타개 전략의 하나로서 '뉴스룸 통합'(Newsroom Convergence)의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디어산업에 대한 각 나라의 규제완화 정책은 "통합뉴스룸을 미디어기업의 잉여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Jenkins, 2006;11쪽). 미국의 경우 2003년 6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촉진시켰고, 국내에서도 2008년 7월 미디어 기업 간 겸영과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미디어법[3]이 통과된 이후, 2010년 말 신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연합뉴스)가 선정되면서 통합뉴스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4] 뉴스룸 통합이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 언론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5] 아직까지 통합뉴스룸을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뉴스룸 통합을 시도하는 언론사들의 사례를 통해 통합의 유형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합뉴스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일리(Dailey et

3) 2008년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은 ①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10%,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30%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②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60%까지 ③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66%로 ④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4)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권을 획득한 언론사 사장들의 2011년 신년사를 보면 신규 방송채널을 운용하기 위해 통합뉴스룸 도입을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기자가 신문, 방송, 인터넷, 모바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면서 "조선일보에 가장 적합한 통합뉴스룸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김창남, 2011.1.12.)

5) 2008년 세계신문협회(WAN)에서 발표한 조사(Newsroom Barometer)를 보면, 전 세계 에디터들 대부분이 "5년 이내에 자국에서 통합뉴스룸 혹은 멀티미디어 뉴스룸이 보편화되고(86%), 저널리스트들이 모든 플랫폼(인쇄, 영상, 오디오, 웹, 모바일)을 위한 콘텐츠 생산 방법을 알게 될 것(83%)"이라고 답했다(김영욱, 2008).

al., 2005)는 매체 간 상호 프로모션(cross promotion), 복제(cloning), 경쟁협조(coopetiton), 콘텐츠 공유(contents sharing), 완전한 융합(full convergence)으로 통합의 정도를 구분하고, 필락(Filak, 2003)은 최소 통합모델(minimal convergence model), 개별적 공유 통합모델(seperated sharing convergence model), 취재 관할지 통합모델(beat-based convergence model), 슈퍼저널리스트 통합모델(super-journalist convergence model)로 분류하고 있다. 노드럽(Northrup, 2002)은 협상모델(negotiation model), 동등모델(coordination model), 협력모델(cooperating model)의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김사승(2006)은 정보융합적 뉴스룸 통합, 생산융합적 뉴스룸 통합, 플랫폼융합적 뉴스룸 통합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델 중에서, CBS 통합뉴스룸은 정보공유나 상호협력의 수준에서 볼 때 데일리(2003)가 제시한 콘텐츠 공유단계나 노드럽(2002)의 동등모델과 가깝고, 뉴스의 생산 측면에서 보면 김사승(2006)이 제시한 생산융합적 통합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BS에는 아직 매체를 총괄 지휘하는 슈퍼데스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모델에 따르면 '완전한' 통합의 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

통합뉴스룸과 관련한 기존 논의는 2000년에 미국 미디어제너럴의 템파 뉴스센터(Tampa News Center)가 신문과 텔레비전, 온라인을 통합한 이후, 멀티플 미디어 플랫폼(multiple media platform)을 위한 뉴스생산 과정과 뉴스생산 관행의 변화 그리고 뉴스룸의 조직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국내 일부 언론사에서도 2000년 이후 인터넷 강화, 온오프라인 간 협업, 자회사 설립이나 별도 법인 분리를 통한 뉴스룸 통합의 실험을 전개해 왔고, 최근에는 인력과 조직의 통합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디지털 통합뉴스룸을 실행하고 있는 해외 언론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윤호진, 2003; 황용석, 2003; 권만우, 2005), 뉴스룸 통합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과 갈등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김사승, 2006; 정동우, 2006; 이화행・김채환, 2007; 우형진, 2009). 이러한 연구들은 통합뉴스룸 도입이 뉴스생산방식과 조직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에 그치고 있다. 최근 CBS 통합뉴스룸을 대상으로 한 정동우(2007)[6]의 연구 정도가 통합뉴스룸 도입 이후의 실질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논의를 종합해 보면, 뉴스룸 통합은 "이전에 명백하게 인쇄, 텔레비전, 온라인 미디어에 속했던 기술, 뉴스상품, 생산인력, 그리고 지리적 요소들이 결합하는 것"(Singer, 2004b;3쪽)으로 정의할 수 있고, 여기에 "시장에서의 공동 프로모션 캠페인까지 포함"(Dailey et al., 2005;151쪽) 해서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통합뉴스룸의 기술적 요인이나 경영적 차원보다 통합뉴스룸 환경에서 기자들의 뉴스생산과정을 주된 관심사로 한다. 따라서 이후 글에서 논하게 될 통합뉴스룸의 개념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이 함께 뉴스생산 과정에서 각각의 매체 성격에 맞는 역할을 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7]

---

6) 정동우(2007)의 연구는 그동안 국내외 연구자들과 저널리즘 수행자들에 의해 뉴스룸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여러 난관들이 CBS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통합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의 연구가 이러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국내에서 가장 먼저 통합뉴스룸을 도입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면서 탐색적・사례기술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둘째, 방법론상의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데, CBS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연구자 스스로 방법론상의 문제를 시인하기도 했다.

7) 이밖에도 연구자들마다 통합과정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통합뉴스룸의 다양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뉴스룸 통합을 위해 "관리자와 기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수적"(Quinn, 2005)이라고 보기도 하며, "'구성원들이 한 집단이라는 소속감'을 가져야 진정한 통합"이라는 주장도 있다(Castaneda, 2003; 권만우, 2005). 각 매체가 생산한 뉴스를 나누어 가지는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의 단계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통합 뉴스룸이라고

2) CBS 통합뉴스룸의 구성과 배치

국내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통합뉴스룸을 운영하고 있는 CBS는 2005년 11월 9일부터 라디오와 케이블TV 그리고 인터넷노컷뉴스의 뉴스룸을 하나로 통합해 '유비쿼터스 뉴스룸'을 구성했고, 2006년 11월 29일부터 무료신문 데일리노컷뉴스의 발행을 시작하면서 라디오+TV+인터넷+종이신문을 포함하는 다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CBS 통합뉴스룸에서는 CBS 소속 보도국 기자들과 CBS의 자회사인 CBSi에 소속된 인터넷노컷뉴스 기자 그리고 CBS의 손자회사인 데일리노컷뉴스의 기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보도국 기자들과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은 보도국 3층에 모여서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데일리노컷뉴스 기자들은 같은 건물 18층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으면서 보도국이나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과 일상적인 교류와 협업을 수행하지는 않는다.[8] 통합뉴스룸의 인적 구성은 CBSi 기자들이 보도국으로 파견되어 있고 보도국 기자들이 인터넷노컷뉴스부로 파견되어 있는 복잡하고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9] CBS 보도국 3층에 구성된 뉴스룸의 내부 배치는 전통적인 언론사의 뉴스룸과 유사한 형태로,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산업부, 문체부, 편집부가 분야별, 출입처별 조직체계에 따라 배치되었다. 전통적 언론사와 유사한 공간배치는 조직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재조직된 것이 아니라 보도국 뉴스룸에 인터넷노컷뉴스부가 단순히 통합되어 있는 형태이다.[10]

4.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통합뉴스룸 도입 이후 CBS 저널리스트들의 숙련도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뉴스룸 통합은 기자들의 뉴스생산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노동과정의 변화로 인해 기자들의 자율성과 경영진의 통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기술혁신이 노동자들의 숙련도 변화에 미친 영향은 탈숙련 혹은 재숙련 가운데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이상의 질문을

정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다수를 차지한다(Rabasca, 2001; Glaser, 2004; 윤호진, 2004).

8) 2010년 2월 현재, CBS 서울 보도국에는 총 119명의 언론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보도국 인력은 총 88명(정규직 63명, 계약직 7명, 프리랜서 18명)이며, CBSi에서 보도국으로 파견되어 있는 인터넷 노컷뉴스부는 총 33명(취재 및 편집기자 23명, 사진기자 4명, 벤팀 4명, CBS 보도국에서 파견된 부장과 차장 각 1명)이다. 데일리노컷뉴스는 25명(취재기자 10명, 편집기자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9) 파견은 간접고용 형태로서, "파견법에 따라 허가받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지만, 업무상 지시·감독은 사용사업체로부터 받는 경우"(전국언론노동조합, 2004)를 말한다. 즉, CBS 자회사인 CBSi에 소속된 기자들이 CBS 보도국에 파견되어 있으면서 업무의 지시 감독은 CBS 보도국에서 파견된 노컷뉴스부장과 차장의 지시를 받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CBSi에서 지급되는 구조이다.

10) 성공적인 통합뉴스룸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더데일리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 통합뉴스룸의 허브 앤 스포크스(Hub-and-Spokes, 중앙-분산 체계) 구조가 상호 소통적이며 협력적인 수준을 끌어 올려 뉴스 콘텐츠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보다 많은 전문 영역들의 자리를 공고히 하게 함으로써 기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최진순, 2007.12.5). 따라서 이러한 공간의 재배치가 반드시 뉴스룸 통합의 전제조건이거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토대로 노동과정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통합뉴스룸의 기술 환경에서 언론 노동자들의 자율성 저하, 통제력 약화로 인한 탈숙련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저항 혹은 의식적인 참여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에서, 뉴스룸 통합으로 인해 달라진 노동환경에 대처하는 언론노동자들의 대응방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노동과정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가들이 달라진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의를 획득하고, 노동자들의 일관된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전략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러한 통제 전략의 함의를 논하고자 하였다.

(1) 연구문제1. 통합뉴스룸 도입 이후 기자노동의 숙련도 변화는 어떤 양상을 띠는가.

(2) 연구문제2. 통합뉴스룸 도입 이후 경영진들이 언론노동자들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제 전략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통합뉴스룸 도입 이후 CBS 기자들의 노동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뉴스룸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CBS측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노동조합의 노보 등을 문서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뉴스룸 참여관찰[11]은 2010년 2월 8일부터 3월 5일까지 4주간 실시하였고, 기록노트와 녹음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관찰하고 느낌 점을 매일 일기식으로 기록하였다. CBS 종사자들에게 연구자의 신분과 연구목적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존재가 연구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찰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CBS 종사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같은 기간 동안 CBS 보도국 기자 13명과 CBSi 소속 인터넷노컷뉴스 기자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도국 기자는 '보도국기자1'부터 '보도국기자13'으로 표기하였고,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는 '인터넷노컷기자1'부터 '인터넷노컷기자7'로 표기하였다.[12] 인터뷰에 응한 보도국 기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5.5년이고, 인터넷노컷뉴스 기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5.4년이다. 인터뷰는 내근기자의 경우 보도국 회의실이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고, 취재기자의 경우 연구자가 취재현장을 방문해 이뤄졌다.[13]

---

11) CBS 보도국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정리한 '참여관찰 계획서'를 전달한 뒤에 현장으로의 진입을 허가받았다. 보도국장은 참여관찰 첫 날 연구자를 보도국에 내근하고 있는 기자와 데스크들에게 일일이 소개해주며 관찰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인터뷰에 도움을 주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사회부와 벤팀 사이에 위치한 뉴스룸 중앙에 자리를 배정받았다. 연구자는 오전, 오후 두 번 열리는 부장단 편집회의 참석, 현장 기자와의 동행, 통합뉴스룸을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 배정 등을 요청하였다. 아이디 배정 문제는 보안상의 이유(내부일정, 기밀사안, 정보보고 등이 포함)로 관철되지 못했고 대신, 보도국장실에서 보도국장과 모니터를 보면서 뉴스 전송 및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전, 오후 열리는 부장단회의 참석 요청은 보안상의 이유와 다른 부장들의 배타적인 반응으로 보도국장의 허락은 받은 때에 한해 참석하였다. 참여관찰 초기에는 연구자가 왜 자신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가 하는 의아심으로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매일 출근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연구의 목적을 밝힌 뒤로 비교적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12)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연구자가 그들의 성별과 취재부서, 근속년수를 함께 공개할 경우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볼 때 인터뷰 대상자의 신원이 드러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이러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근속년수와 성별, 담당부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13) 예를 들면, 정치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청와대 춘추관, 국회 기자실을 방문하였고, 사회부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검찰청, 경찰청에서 이뤄졌다.

5. 통합뉴스룸 도입 이후 노동과정의 변화

1) 통합뉴스룸의 도입과 노동의 탈숙련화

경영진과 자본가에 의해 도입되는 신기술로 인해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상실해 간다는 탈숙련 명제를 언론노동과정에 적용할 때, “정보사회 이후 등장한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뉴스생산과정의 편리성, 효율성을 증대시켜 왔기 때문에 숙련도 저하가 아닌 다기능적 노동부문의 숙련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산업화 시대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과정과 노동경험을 설명하기에 적합했던 탈숙련 명제가 언론노동에도 적용 가능한 개념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글에서는 CBS의 뉴스룸 통합 이후 뉴스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자들의 노동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숙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1) 노동조건과 노동강도의 심화

통합뉴스룸 도입으로 인해 CBS 기자들은 라디오+인터넷+TV+종이신문 등 4개 매체를 위해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뉴스룸 통합 이전 라디오 매체만을 위해 뉴스를 생산하던 때와 비교하면, 뉴스를 기획,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재가공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과 노동의 양은 증가하였다. 취재현장에서 기자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기자들은 속보성이 요구되는 인터넷노컷뉴스용 스트레이트 기사를 먼저 작성하고, 하루 세 번 라디오 뉴스에 생방송 리포트를 한다.[14] 두 매체를 위한 기사작성이 끝나면, 인터넷노컷뉴스용 해설기사를 작성하거나 가십성 이슈를 찾아야 한다.[15] 익일 종이신문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올 경우 퇴근시간 이후까지 추가노동을 해야 했다.[16] 일간지 신문사 기자들이 보통 오후 4시에 마감을 하고 보충 취재를 하거나 노동의 재생산 시간을 갖는 것과 비교하면, CBS 기자들은 이 시간부터 “새로운 매체를 위해 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보도국 기자7)과 같다.

> [보도국 기자3] : 오전 중에 이슈가 터지면 하루에 몇 번씩 인터넷 기사를 바꿔줘야 하고, 인터넷노컷 속보 쓰고 라디오 리포트를 하다 보면 점심식사를 거를 때도 많을 정도다

14) 보도국은 기자들의 노동강도 심화로 인해 2009년 5월부터 라디오 뉴스를 대폭 줄여 하루 세 번(아침, 낮, 저녁) 라디오 종합뉴스를 편성하고 있다. 전에 비해 노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기자들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매체를 위한 뉴스생산의 요구가 기자노동의 성격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에게 숙련된 노동과 질적으로 다른 노동을 수행함에 따라서 늘 일이 새롭고 많게 느껴졌던 것이다.

15) 흔히, 원소스멀티유즈(OSMU)는 한 번 생산한 상품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이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각각의 매체적 속성을 감안한다면, 뉴스상품의 원소스멀티유즈가 단순히 배포나 출판의 창구를 다양화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라디오의 경우 텍스트 기사를 8줄 정도만 작성하면 되었는데, 다매체를 고려했을 때 “매체마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따로 쓸 수밖에 없다”(보도국 기자6). 따라서 기자들이 다매체를 위해 뉴스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노동조건의 심화를 야기한다.

16) 데일리노컷뉴스 1면에 실릴 기사는 보통 오후 4시 보도국에서 열리는 부장단 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자들은 부장단 회의 이후 추가노동의 지시를 받게 된다. 일례로, 오후 부장단 회의에서 익일 데일리노컷뉴스(종이신문) 1면으로 실릴 기사가 정해지면 담당 부장이 다급히 내근기자를 통해 현장기자에게 기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관찰되곤 했다. 이때 내근기자들은 현장기자에게 “미리 기사 써 놓으라고 전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추가노동에 대한 기자들의 압박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도국 기자8] : 저녁때가 다 돼서 종이신문 1면 기사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면 잡혀 있던 약속을 깨고 기사를 써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된다

다매체를 위한 기사작성의 요구는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 시간에 취재원을 만나거나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기자노동의 특성에도 제약을 가져왔다. 아래와 같은 기자들의 진술은 현재의 노동조건 속에서 취재원 관리나 자발적인 심층취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뉴스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보도국 기자2] :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럽다. 기자가 하는 행동 모두가 취재하고 연관된 것이고, 특종 같은 것도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로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럽다. 취재원 관리를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은 차이가 안 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사 기자들하고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보도국 기자11] : 심층취재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특종을 한다 하더라도 4개 매체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누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겠는가

다매체를 위한 뉴스생산과정의 변화로 인해 기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강도가 심화되어 왔고, 갈수록 노동에 대한 의욕과 만족감을 상실한 채 자신들 앞에 주어진 일들을 서둘러 처리해야만 하는 노동의 기능적 수행을 반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라디오 매체에 숙련된 노동환경과 비교할 때, 기자 스스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의 양과 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식노동자로서 기자들에게 일의 실행 못지않게 중요한 기획의 노동 부문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새로운 기술의 사용과 경영진의 통제 강화

① 백팩저널리즘의 실험과 노동의 다기능화

CBS는 통합뉴스룸 도입 초기부터 기자들에게 사진기와 동영상 촬영기기를 나누어 주고, 텍스트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뉴스와 영상뉴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다기능(multi tasking)적 노동 수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다매체를 위한 뉴스생산으로 노동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취재는 처음부터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17] 다매체를 위한 취재와 기사작성에 할애 할 시간도 부족한 현실에서 취재 도중 카메라를 들고 별도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CBS 기자들은 라디오매체의 특성 상 일상적으로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데, 그럴 경우 취재할 때 취재수

17) 보도국장은 통합뉴스룸 구축을 통한 백팩저널리즘의 실험이 진가를 발휘한 증거로서, 2006년 5월20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진 특종과 '불길에 휩싸인 철거민' 사진으로 CBS 노컷뉴스 기자가 제41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보도국 기자들은 백팩저널리즘이 "해외 갈등 현장에서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보도국 기자1)이거나 "급박한 발생기사를 다루지 않는 취재부서에 속한 때"(보도국 기자10)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첩, 녹음기 이외에도 사진기나 캠코더까지 들고 다니면 현장취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었다. 한 기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다매체를 운영하면서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취재를 하라는 경영진의 요구가 노동조건을 심화시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 [보도국 기자6] : 녹음 따야지, 사진도 찍어야지, 동영상도 찍어야지, 그러면 취재가 잘 안 된다. 그렇다고 동영상이나 사진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음성도 제대로 못 따고. 게다가 들고 다녀야 하는 장비가 너무 많아졌다. 나중에는 전부 잘 못하게 되는 것이다

CBS에서 구축한 통합뉴스룸 시스템을 통해 기자들은 고유의 취재 활동 외에도 편집・교열 노동에 해당하는 제목 선정, 오탈자 교정, 관련기사를 첨부해서 기사를 전송하도록 요구받았다.[18] 그러나 보도국 기자들은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제목을 정하거나 기사의 교정을 보고 관련기사를 첨부하는 일에 숙련되어 있지 않았고, 게다가 "기사를 빨리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제목까지 뽑아서 보내고 교정도 보라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보도국 기자2) 일이 많아졌다. 뉴스룸 통합 초기 시도되었던 다기능적 노동수행의 요구는 현재 보도국 기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보도국 정규직 기자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저항한 성과이지만, 이후 CBS 경영진들이 자회사인 CBSi를 통해 비숙련, 반숙련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보도국에 파견직으로 배치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의 재구조화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CBS 경영진들은 보도국 한 명의 기자가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했던 노동부문을 비정규 노동을 고용해 재분화 하였다.

그동안 기술혁신으로 가능해진 다기능적 노동을 통해 기자들의 노동이 탈숙련화 되는 대신에 다양한 노동부문에서 숙련도 향상 혹은 재숙련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백팩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기능적 취재의 요구는 다매체로 인해 심화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경영진은 이윤창출의 필요에 따라 노동과정과 분업구조를 통합하거나 재분화시킴으로써, 결국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을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이 약화되는 탈숙련화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었다.

② 경영진의 통제 강화와 자율성 하락

뉴스룸 통합과 같은 신기술 도입 이후 경영진이나 선임 기자들의 통제가 강화되기보다는 "느슨한 통제"(김사승, 2006;114쪽)로 변화하면서 기자의 책임자율성이 확대되었다는 주장도 탈숙련이 아닌 재숙련의 가능성으로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뉴스룸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통합뉴스룸 도입 이후 기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경영진의 감시는 더욱 일상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뉴스룸 통합 이후 CBS 기자들은 인터넷 메신저와 유사한 '쪽지' 기능을 통해 데스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기자들 간에 보다 손쉽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자노동의 효율성, 편리성은 증대되었지만, 한편으로 데스크나 선배 기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을 좀 더 쉽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적인 노동과정에서 기자들은 "데스크나 다른 기자들에 의해 모니터되는 느낌"(보도국 기자9)을 갖게 되었

18) 기자들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요구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한 부장은 "사진이 없으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면서 기자에게 사진을 첨부해서 기사를 전송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관찰되기도 했다.

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장치로 인해 경영진들은 기자들의 업무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에 용이해졌다. 일례로, CBS 보도국은 뉴스룸 통합 초기 최다송고상, 최다조회상, 특종상, 특별상, 지방상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현금을 지급하는 보상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19] 이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경영진들이 이러한 장치를 통해 기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과학적 관리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밖에도 기자들에게 속보기사일 경우 현장에서 'Hot'을 누르고 게이트키핑(gatekeeping)을 거치지 않은 채 기사를 전송할 수 있는 승인 권한이 주어졌다. 취재기자가 게이트키퍼의 기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면 기자의 책임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뉴스룸 관찰 중에도 게이트키핑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되었다.[20] 결국 실시간 기사전송 권한의 부여는 질 좋은 뉴스생산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속보경쟁에 치우쳐 기자들로 하여금 속보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통합뉴스룸 체계는 기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계이며 경영진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통제의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자율성이 위축된 채 이전보다 더 큰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은 숙련의 강화가 아닌 탈숙련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 경영진의 은폐된 통제시도와 노동자의 동의창출 방식

(1) 노동자들의 대응방식과 가족주의 담론

자본주의 노동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자본가와 노동자 또는 노동자 부문 간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저항하거나 타협, 순응의 과정을 거쳐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도입의 방향이나 속도는 일정 정도 수정되거나 조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언론 노동자들은 자본의 신기술 도입에 맞서 저항하기 보다는 타협과 동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1960~1970년대 미국 신문사들이 신문 제작과정을 전산화·자동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저항이나 노사간의 협상에 의해 신기술 도입을 일시적으로 유예시킬 수는 있었지만, 자동화 자체를 방어하거나 그것을 변형시키지는 못했으며"(Zimbalist, 1979;124~125쪽), 국내 신문산업에 CTS가 도입되던 당시에도 공무국 노동자들은 "CTS 도입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여 찬성하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김지선, 1992;118쪽). 통합뉴스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기자들은 "그들의 경력과 회사, 독자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을 신뢰"(Singer, 2004a;849쪽)하였으며, 국내 기자들도 "뉴스룸 통합 과정에서 노조의 저항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지 않았다"(이화행·김채환, 2007;294쪽). 유사하게, CBS가 통합뉴스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19) 이러한 보상체계는 "기사의 클릭수나 송고수를 갖고 좋은 기사를 평가할 수 있는가"(보도국 기자6) 혹은 "부서별로 기사의 특징이 반영되지 못한 점"(보도국 기자8)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20) 게이트키핑 과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때문이다. 첫째는 게이트키핑을 담당해야 할 부장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많은 기사들을 전부 확인할 여유가 없고, 속보성이 중시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그만큼 속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둘째는 각 부서의 데스크들도 고유의 업무 외에 인터넷에 데스크 칼럼을 작성해야 하는 등 1인 다역을 요구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통합뉴스룸에서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사의 게이트키핑을 위해 슈퍼데스크와 모니터팀을 두고 있지만, CBS의 뉴스룸에서는 "슈퍼데스크가 옥상옥의 구조가 아닌가"(보도국 기자2) 하는 우려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시장구조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심리 그리고 라디오방송사로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소수자 정체성 때문에 통합뉴스룸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없었다. 통합뉴스룸 도입 직후인 2006년 6월 CBS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경영진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잘 한 분야'로 '매체 다양화 정책'(48.1%)이 선정됐을 정도로 통합뉴스룸 도입에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CBS노보 182호, 2006.6.1).[21]

이처럼 신기술 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이 타협하거나 순응해 왔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마다(Samaddar, 1995;233쪽)는 그 이유로 첫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기술 현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둘째, 임금협상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뉴스룸 통합 초기 CBS 노동자들은 통합뉴스룸을 두고 "작업하는 툴이나 기사 전송하는 시스템"(보도국 기자1)으로만 알고 있었고, 통합뉴스룸 도입이 6년째를 맞는 현재까지도 "작업을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개념"(보도국 기자12) 정도의 기능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기자들이 상당수였다. CBS 정도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언론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자들은 노동수행의 만족감[22]을 일종의 보상체계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다매체에 자신의 실명기사가 실리면서 취재원들이나 독자들로부터 오는 반응[23]은 이전 라디오매체만 할 때와 비교해 획기적인 변화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에 느꼈던 만족감은 더 이상 자발적이고 추가적인 노동수행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보도국 기자들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저항하는 대신 "이 정도 노동강도 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받는 게 정당하다"(보도국 기자10) 거나, "적절한 보상, 인센티브 같은 게 이뤄져야지 유지될 수 있다"(보도국 기자5)는 식의 임금협상이나 보상체계와 같은 제도적 측면으로 대응해 왔다.

이처럼 경영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기술혁신에 대한 노동자들의 무관심과 타협적 자세는 결국 "경영 권력의 강화"(박준식, 1996;157쪽)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외 뉴스룸 통합에 대한 연구 가운데 상당수는 기업경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임봉수, 2009; 정동우, 2007; Sullivan, 2004)와 뉴스룸 통합과 기업 경영성과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으로 연구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이화행・김채환, 2007; Glaser, 2004, Tompkins, 2001). 대부분의 언론 기업들은 통합뉴스룸을 추진하는 이유로 "독자에게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저널리즘의 경쟁력을 높이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목표"(정동우, 2007;10쪽)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뉴스룸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언론사에서 대량해고를 단행한 사례가 많다는 점[24]은 뉴스룸 통합이 결국 예산축소를 위한 경영슬림화에 목적이 있음을

21) 2006년의 조사 다음해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CBS에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인력, 조직의 취약성"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통합뉴스룸 도입 초기에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조건 심화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적은 인력과 조직의 재구조화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2) 기자들은 인터넷노컷뉴스에 올린 기사의 '클릭수'를 보면서 자신의 기사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고된 노동에 대한 일종의 만족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뉴스룸 관찰을 하는 도중, 한 기자는 자신이 전날 작성한 기사가 예상외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면서 흡족해하는 얘기를 연구자에게 하기도 했다.

23) 취재원이나 독자들로부터의 반응은 노동의 만족감을 높이고 추가적인 노동을 위한 욕구를 고취시키는 요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체와 기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의 압력도 커졌고, 이전에 비해 정정, 반론보도 요청 건수도 늘어났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반응이 오는 게 좋았지만, 그 자체도 기자로서는 피곤한 일"(보도국 기자2)이었던 것이다.

24) BBC는 2007년 통합뉴스룸을 단행하면서 3,000여개의 직무를 없애고 인터넷, 라디오, TV 등 분야에서 520여명의 편집자를 해고(온라인미디어뉴스, 2007.11.14.)했고, 세계적인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도 2008년 뉴스룸을

보여준다.

CBS 노동자들은 뉴스룸 통합 이후 노동조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체로 "어려운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CBS는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집단"(보도국 기자11) 혹은 "우리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힘든 건 참아야 하는 일"(보도국 기자1) 이었던 것이다.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경영진들이 '기업주와 노동자는 한 가족이다' 혹은 '기업과 노동자는 운명공동체이다'와 같은 노사 간의 일체감과 기업의식을 강조하는 기업조직의 이데올로기를 유포시켜 왔고, 언론노동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언론기업이 강조해 온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 해 왔다. 그러나 어려운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교섭에 기초한 참여를 통해 생산성 회복과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의해 부정"(강남훈, 2002;198쪽)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기시에는 다시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도입된다"(임영호, 1999;176쪽)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장, CBS 보도국 기자들에 대한 해고나 임금삭감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비정규 노동이 고용되고 숙련 노동의 지위 저하가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가족주의적 기업문화의 확산은 결코 노사 간의 합의 된 고통분담의 차원이 아니며, "기업문화 전략 속에 감추어진 '생산에 대한 동의의 창출'과 '노동사회의 고립화'라는 기업의 의도가 관철되는 효과"(박준식, 1996;192쪽)에 있을 뿐이다.

(2) 뉴스생산 관행의 이데올로기적 통제

역사적으로 자본가와 경영진들은 기술도입으로 인해 달라진 노동환경에서 억압적인 노동조건을 은폐하고 노사 간의 갈등을 포섭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통제 장치들을 도입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인쇄기술과 전신이 도입된 이후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보도가 뉴스생산의 전형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25] 20세기 초 인쇄기술의 발달 이후 "노동부문 내에서 인쇄・공무 노동의 저하와 기자노동의 상대적 지위변화가 야기되었던"(Örnebring, 2010;62쪽) 것은 객관주의 보도관행이 언론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해 줄 새로운 저널리즘 보도양식이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도입된 이후 "속도의 이데올로기가 주요한 뉴스생산의 가치로서 규정"(Aviles et al., 2004;99쪽)되면서 더 빨리 더 많은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 전형적인 보도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매체에 다기능적 노동수행을 필요로 하는 통합뉴스룸 도입 이후 그러한 흐름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26] 뉴스룸 통합 이후 CBS 기자들의 뉴스생산 관행은 이전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졌다. 아래 기자의 진술처럼, 라디오, TV, 종이신문, 인터넷 각각의 매체 특성에 따라 뉴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취재, 편집을 거쳐 최종 뉴스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행과 규범에 차이가 있다.

통합하면서 약 20여 명의 경제 편집 스태프들을 해고한 바 있다(최진순, 2007.12.14).

25) 새로운 기술환경이 기존의 뉴스생산 관행이나 가치 규범을 변화시켜 왔다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속보경쟁의 압력을 강하게 받는 환경에서는 사실확인을 원칙으로 삼는 저널리즘의 직업 규범은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윤영철, 2001;194쪽, Singer, 2003;153쪽).

26) 통합뉴스룸에서 기자들의 뉴스생산 관행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Dailey et al.,(2005), Stevens(2002), Singer(2004b), 정동우(2007), 이화행・김채환(2007), 김사승(2006), 권만우(2005) 등을 참조.

[보도국 기자11] : TV는 그림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만들고, 라디오는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사실을 구성한다. 인터넷은 긴 텍스트 기사를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중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는 시각적, 해설적 효과도 필요하다. 종이신문은 제한된 공간에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쓰고, 다른 매체보다 세련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체에 익숙했던 보도국 기자들은 단지 "'했습니다'를 '했다' 정도로 고치면 되는 줄로만 알고"(보도국 기자13) 있을 정도로 매체별 특성에 맞는 뉴스생산 관행에 숙련되지 못했다. 저녁 라디오 종합뉴스를 앞두고 라디오부장이 뉴스룸을 돌아다니면서 "두 줄로 쓸 걸 한 줄로 축약해서 쓰라"(라디오부장)고 요청하는 모습도 자주 관찰되었다. 인터넷노컷뉴스를 위해 작성한 기사를 라디오뉴스의 보도관행에 맞게 바꿔줘야 하는데, 심화된 노동조건 속에서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기자들로서는 "방송기사도 아니고 신문기사도 아닌 애매한 기사를 쓰거나"(보도국 기자7), "인터넷에 올린 기사를 라디오용으로 줄이는 시간을 덜기 위해 인터넷용 기사의 문장이 짧아지는"(보도국 기자11) 현상도 나타났다.[27]

언론노동자들이 새로운 생산관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배경에는 스스로를 전문직으로 규정하는 직업의식을 통해 자본이나 소유주에 대항할 수 있는 직업적 지위와 자율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언론인들은 새로운 뉴스생산 관행의 수용이 억압적 노동조건을 은폐하기 위한 통제장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 왔다. 아울러 경영진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노동자들의 의식적인 참여를 통해 노동의 격하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곧 "노동자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통제"(Thomson, 1983/1987;180쪽)에 다름 아니다.

(3) 내부노동시장의 분절화를 통한 통제 전략

CBS 통합뉴스룸은 단일한 공간에 조직과 인력이 합쳐져 있는 형태이지만,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은 보도국 기자들로부터 업무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노동조건, 고용안정성, 교육훈련이나 승진기회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경영진들은 작업장에 이질적이고 분절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숙련된 1차 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들에게는 억압적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거나 회유하는 장치로서 활용하고, 비숙련 혹은 반숙련 2차 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고용 전략을 취해 왔다.[28]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의 분절화 현상은 통합뉴스룸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CBS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통합뉴스룸 도입 이후 노동조건 심화에 따른 보도국 기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경영진은 CBS의 자회사인 CBSi를 통해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경영진들은 자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내부노동시장을 만듦으로써 보다 손쉬운 통제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은 보도국 기자들과 동일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만 했다.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은 "노컷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도 보도국에

27) 각기 매체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던 기자들은 "신문기사를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보도국 기자9), "나만의 문체를 생각해보기도 하는"(보도국 기자7) 식으로 적응해 나갔다. 수년 동안 라디오 방송체에 숙련돼 있던 기자들은 "글쓰기 기법이 많이 사라졌다"(보도국 기자4)고 토로하기도 했다.

28)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의 형성에 대한 논의는 되링어와 피오레(Doeringer and Piore, 1971)를 참조.

갓 들어온 신입보다 못한 구조"(인터넷노컷기자3)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서 안정감을 갖지 못한 채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입사 이후 별도의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은 노동현장에 배치될 때에도 "정치, 사회는 신입보다 연차가 높은 기자를 배치"(인터넷노컷기자5)하거나 "무조건 3~4개월 일을 시키고 벼랑으로 몰면서 살아남는 식"(인터넷노컷기자1)으로 노동경험을 쌓아가고 있었다. 한 기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이 지닌 불안정한 노동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인터넷노컷 기자5] : 힘든데도 죽어라 하는 이유는 멀티기자를 지향한다는 회사측 방침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 특성을 어떻게든 발휘해 보려고 하고 있다. 회사에서 어려워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은 자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뿐, 보도국으로부터 일상적인 업무의 지시, 감독,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터넷노컷 편집기자들은 편집기자 고유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했다. 일례로 보도국 기자들과 인터넷노컷 편집기자들 간에 '제목수정'을 놓고 벌어진 논쟁을 보면, 보도국 기자들이 경영진을 대신해 인터넷노컷 기자들을 일종의 '대리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노동과 자본 간의 적대가 보도국 기자들과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 간의 갈등으로 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고, 그것은 곧 자본이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단일한 저항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전략의 발현인 것이다.

[인터넷노컷 기자4] : 제목을 현장 기자가 뽑아 왔는데 절대 바꾸지 말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노컷에서 볼 때 이 제목은 길고 내용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서 바꾸게 된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왜 바꿨냐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

[보도국 기자7] : 노컷기자들이 못 믿을 정도의 실수를 하는 걸 보도국 기자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CBS와 CBSi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같은 구성원이 아니니까 보도국 기자들은 편집팀에 대해 맘에 안 든다 할 정도로 선입견을 항상 갖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다른 이유는 보도국 기자들이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에 대해 갖는 인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도국 기자들은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을 "별동대로 생각"(보도국 기자9)하거나, "계약직이니까 곧 떠날 사람들"(보도국 기자10)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노동과정에서 일상적인 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설정에 있어 동등한 관계보다는 "배려해주는 관계"(보도국 기자2)이거나, "업무상 교류가 있는 수준이지 솔직히는 종속관계"(보도국 기자10)였던 것이다.[29] 이처럼 중심부 노동과 주변부 노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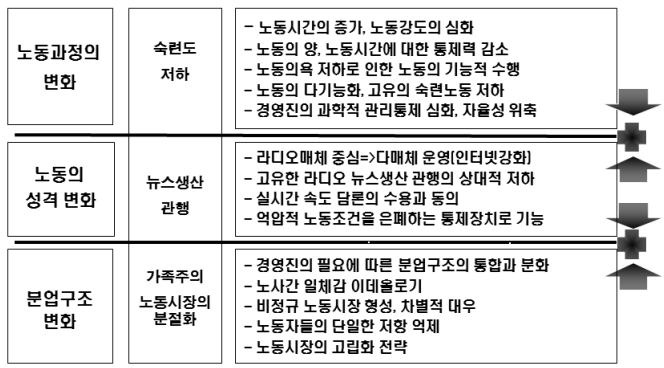
29) 특히, 정규직 공채로 입사해서 기수에 따라 위계구조가 잘 짜여진 보도국 기자들과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 간의 조직문화의 차이는 서로를 동료집단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위계적 관행과 문화 그리고 저널리즘의 윤리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황용석, 2003; 김경호, 2006)가 뉴스룸의 통합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의 노동시장 분절화는 숙련노동자들의 저항에 맞서 경영진들이 추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숙련 노동자들이 저항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해 일정한 진입장애를 형성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분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일조하기도 한 것이다"(Penn, 1982; 박상언, 2002;273쪽).

6. 결 론

지금까지 저널리즘 연구에서 언론인 그리고 저널리즘 행위에 대한 논의는 '전문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내에서 핵심적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기자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기자를 언론기업의 잉여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임금노동자로 규정하고, 기존의 조직사회학적 뉴스 연구의 틀을 벗어나 '노동'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저널리즘 행위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저널리즘 행위가 발생하는 뉴스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관찰을 통해 기존 연구에 비해 보다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뉴스룸 컨버전스의 기술혁신이 기자노동의 노동조건,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나타나는 억압적 노동조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영진이 사용하는 통제전략을 노동과정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4주간의 뉴스룸 참여관찰과 20명의 CBS 기자 및 CBSi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기자들은 뉴스룸 통합 이후 다매체를 위한 뉴스생산과 다기능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은 지속적인 노동조건과 노동강도의 심화로 인해 노동의 자율성 약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기술적 장치들로 인해 경영진의 과학적 관리통제가 더욱 용이해짐으로써 재숙련이나 숙련도 상승이 아닌 탈숙련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통합뉴스룸 도입 이후 CBS 기자노동의 탈숙련화

지적하고 있다. 보도국 기자들과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 상호간의 '호칭'을 통해서도 이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기자사회에서 보통 선임 기자들을 '선배'라고 호칭하는 데 비해, 보도국 기자들은 인터넷노컷뉴스 기자들을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혁신이 노동과정의 숙련도 저하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왜 의식적인 참여를 통해 모순된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뉴스룸 통합 이후 CBS 언론 노동자들의 대응방식과 경영진들이 노동자들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제 전략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CBS 보도국 기자들은 뉴스룸 통합의 기술혁신을 맞아 타협, 순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합한 뉴스생산 관행을 자본과 노동이 합의한 일종의 '게임의 규칙'으로 받아들이거나 '기업과 노동자는 운명공동체'라는 가족주의 노사문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결국 작업장에서 경영 권력의 강화를 초래해 왔다. 또한 경영진들은 보도국 정규직 기자와 비정규직・프리랜서 파견직 기자들로의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단일한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억제하는 노동사회의 고립화 전략을 취해 왔다.

뉴스룸 통합 이후 기자들의 자율성과 통제력이 박탈당하면서 탈숙련화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이상의 경험적 증거는 노동과정론에서 제시한 개념과 비판적 설명력이 여전히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서,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한 거대 일간지 사업자들이 이후 통합뉴스룸 구축을 통해 노동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할 때, 노동과정론적 관점에서의 통합뉴스룸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저널리즘과 언론노동자들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강남훈 (2002).『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서울: 문화과학사.

강상현 (1996). 신문기업의 신기술도입과 노동과정의 변화.『한국언론학보』, 39호, 5～51.

권만우 (2005). 뉴스룸 컨버전스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석.『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5호, 229～277.]

김경호 (2006. 3). 신문기업의 디지털뉴스룸 전환 요인과 비용 : 종이신문 중심의 내적 관성이 지체 요인.『신문과 방송』, 통권 423호, 73～77.

김동원 (2010).『한국방송산업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형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경 (1993).『언론자본합리화에 따르는 언론노동통제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사승 (2006). 온-오프 뉴스룸 통합에 의한 간부통제기능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분석.『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122～150.

김순영 (2007).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을 통해 본 방송작가의 노동자성.『페미니즘연구』, 제7권 2호, 175～212.

김영욱 (2008. 8). 신문, 멀티미디어 되다－2008 WAN(세계신문협회) 총회 보고서.『미디어인사이트』, 5호, 2～41.

김영한 (2008).『한국 방송노동시장의 유연화 연구-1990년대 이후 방송노동자의 유연화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선 (1992).『신문 제작 전산화 과정에 나타나는 노동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창남 (2011. 1. 12). 언론사 통합뉴스룸 구축 논의 활발.『한국기자협회보』.

김현선 (2009. 7. 10). 비정규 피디의 생활세계와 직업의식. <비정규직PD의 노동조건과 생활실태> 토론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박상언 (2004). 노동과정이론 30년-회고와 전망, 그리고 향후 과제.『연세경영연구』, 41권 1호, 107～142.

박성희 (1995).『한국 신문사의 CTS 도입에 따른 '편집국 문화'의 변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식 (1996).『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서울: 한울.

온라인미디어뉴스 (2007. 11. 14). BBC, 통합뉴스룸 갈등속 출범. Available: http://www.onlinemedianews.co.kr

우형진 (2009). 신문기업의 뉴스 콘텐츠 디지털화 전략에 대한 문제점 인식 연구.『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58～81.

윤호진 (2003).『주요국 디지털 통합 뉴스룸의 운영 현황』.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_____ (2004).『디지털뉴스룸과 방송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윤영철 (2001).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7호, 182～213.

이화행・김채환 (2007). 통합 뉴스룸 도입에 대한 신문기자들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언론과학연구』, 7권 3호, 266～300.

임봉수 (2009).『뉴스룸 통합이 미디어의 경영성과와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영호 (1992), 언론노동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신문연구소학보』, 29호, 77～98.

_____ (1999).『기술혁신과 언론노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전국언론노동조합 (2004).『2004 언론사 노동 실태 조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동우 (2006). 국내 신문사 뉴스룸 통합의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249～278.

정동우 (2007).『뉴스조직 통합이 뉴스의 양식, 취재행위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CBS 방송의 통합 뉴스룸 사례연구』. 한국외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연우 (1994).『한국 신문산업에 관한 산업조직론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차성수 (1986). 노동과정론의 평가와 전망.『고려사회학논집』, 4집, 17～33.

최진순 (2007. 12. 5). 더데일리텔레그래프의 통합뉴스룸. Available: http://www.onlinejournalism.co.kr

최진순 (2007. 12. 14). 비즈니스 위크, 뉴스룸 통합 결정. Available: http://www.onlinejournalism.co.kr

최진환 (1994).『CTS 도입에 따른 신문노동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용석 (2003).『뉴스의 다매체전략과 통합뉴스룸』. 서울: 한국언론재단.

CBS노동조합 (2006. 6. 1). 가장 잘한 것-"매체 다양화".『CBS노보』, 182호.

_____ (2007. 6. 15). 임금인상, 왜 14%인가?.『CBS노보』, 192호.

Braverman, H. (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N.Y: Monthly Review Press. 이한주・강남훈 역 (1987).『노동과 독점자본』. 서울: 까치.

Brighton Labor Process Group. (1977). *The Capitalist Labor Process. Capital & Class, No(1)*, 3～26. 허석렬 역 (1994). 자본주의적 노동과정.『현대노동과정론』(95～139). 서울: 자작아카데미.

Burowoy, M. (1979). *Manufacturing consent: Changes in the Labour Process under Monopoly Capital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astaneda, L. (2003). Teaching convergence. *Online Journalism Review, posted 2003-3-6. USC Annenberg.* Available: http://www.ojr.org

Dailey, L., & Demo, L., & Spillman, M. (2005). The Convergence Continuum: A Model for Studying Collaboration Between Media Newsrooms. *Atlantic Journal of Communication, 13(3)*, 150～168.

Edwards, R. (1978). 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 at the Point of Production *Insurgent Sociologists, 8(2)*, 40～64.

Filak, V. F. (2003). *Conflict and convergence: a Study of intergroup bias and journalists*. Ph D,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Glaser, M. (2004). Business side of convergence has myths, Some real benefits, *Online Journalism Review, posted 2004-5-19. USC Annenberg.* Available: http://www.ojr.org

Hardt, H. (1990). Newsworkers, Technology, and Journalism Histor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7, 346～365.

Liu, C.-D. (2006). De-skilling Effects on Journalists: ICTs and the Labour Process of Taiwanese Newspaper Reporters.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1(3)*, 695～714.

Marx, K. (1976). *Capital*. *1.* London: Penguin Books.

McKercher, C. (2002). *Newsworkers United-Labor, Convergence, and North American Newspaper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Mosco, V. (1996).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김지운 역 (1998).『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성찰과 새출발』. 서울: 나남.

Northrup, K. (2002). Opening Presentation at the Third international Ifra summit, defining convergence. *Columbia, SC, 13,* November.

Outing, S. (2009. 1. 28). The All-Digital Newsroom of the Not-So-Distant Future. EDITOR & PUBLISHER.

Örnebring, H. (2010). Technology and journalism-as-labour: historical perspectives. *Journalism, 11(1)*, 57～74.

Penn, R. (1982). Skilled Manual Workers in the Labour Process. 1856-1964. in Stephen Wood (ed.). The Degradation of Work?: Skill, Deskilling and the Labour Process. London: Hutchinson, 90～108.

Piore, M. J., & Doeringer, P. (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djustment*. N.Y.

Quandt, T., & Singer, J. B. (2009). Convergence and Cross-Platform Content Production. In Karin W.-J., & Hanitzsch, T. (ed.).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pp.130～146). New York: Routledge.

Quinn, S. (2005). Convergence's fundamental question, *Journalism Studies, 27(6)*, 52～58.

Rabasca, L. (2001). The next newsroom. *Presstime, June*, 44～50.

Samaddar, R. (1995). New technology at the shopfloor level: The story of deunionization in some Indian newspapers. In A. Bagchi (ed.), New technology and the workers' response: Microelectronics, labour and society (pp. 301～338). New Delhi, India: Sage.

Scott, B. (2005). A contemporary history of digital journalism. *Television & New Media, 6(1)*, 89-126.

Singer. J. B. (2003). Who are these guys?: The online challenge to the notion of journalistic professionalism. *Journalism, 4(2)*, 139～163.

Singer, J. B. (2004a). More than ink-stained wretches: the resocialization of print journalists in converged newsrooms. *Journalism & Communication Quarterly, 81(4)*, 838～856.

Singer, J. B. (2004b). Strange bedfellows? The diffusion of convergence in four news organizations, *Journalism Studies, 5(1)*, 3～18.

Stevens, J. (2002). Backpack journalism is here to say, *Online Journalism Review, posted 2002-4-2, USC Annenberg*, Available: http://www.ojr.org

Sullivan, C. (2004). Journal World: Lawrence, Kan, *Editor & Publisher, 137(7)*.

Tompson, P. (1983). *The nature of work: An introduction to debates on the labour process.* 심윤종・김문조 역 (1987).『노동사회학: 노동과정에 관한 제논쟁』, 서울: 경문사.

Tompkins, A. (2001). Convergence needs a leg to stand on, Available: http://www.poynter.org/centerpiece/022801tompkins.htm

Zimbalist, A. (1979). Technology and the labor process in the printing industry. In A. Zimbalist (Ed.), Case studies on the labor process (pp.103～126). New York, NY: Monthly Review.

(투고일자: 2011.5.31, 수정일자: 2011.7.22, 게재확정일자: 2011.7.26)

ABSTRACT

Changes in News-Production Labor Process Since The Introduction of Convergent Newsroom : A Case Study on The CBS Convergent Newsroom

Ik-Han Yoon* · Kyun Kim**

Technology innovation of digital convergence in recent years of the media sector has produced a series of significant changes in journalist labor. This study analyzes how recent introduction of convergent newsroom changed the nature of journalist labor and what strategy the management used to control journalists within the technologically innovated working condition with case of CBS.

As the labor process theory tells us, the analysis found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newsroom has encouraged a couple of aspects regarding labor process. First, losing control over their own labor journalists have undergone the process of significant deskilling. Second, the management have made a constant effort to introduce ideological and political apparatuses with twofold purposes, effective control over workers on one hand and concealing oppressive labor conditions on the other. The effort generated journalists' acceptance of new news-making routine and their consent on labor-management culture founded upon naive familism, which at last resulted in reinforcement of corporate power and isolation of labor society by separating internal labor market.

Keywords: Convergent Newsroom, Labor Process Theory, Journalist Labor, Deskilling, News-making Routine

* Doctoral Student, School of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